

2026년 2/4분기

인천지역 소매유통업 경기전망 보고서

2026. 4



INCHEO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인천상공회의소

Contents

SECTION 1.		<표 목차>	
설문조사 개요	1	1. 업태별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4
		2. 2026년 2분기 경영 활동 현안 및 애로사항	5
		3. 중동 사태(이란 전쟁)으로 인한 매입가 및 물류 비용 상승 부담 수준	5
		4. 중동 사태(이란 전쟁)으로 인한 매출 변화 전망	6
SECTION 2.		<그림 목차>	
1.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	2	1. 인천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추이	2
① 종합 경기 전망	2		
② 부문별 경기 전망	3	2. 경영 부문별 '26년 2/4분기 전망	3
③ 업태별 경기 전망	4		
2. 소매유통업 경영 환경	5		
① 2026년 2분기 경영 활동 현안 및 애로 사항	5		
② 중동 사태가 인천지역 소매 유통업계의 미치는 영향	5		

설문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6. 3. 6 ~ 3. 20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조사
- RBSI 산출식

$$(\text{호전예상 응답 기업수} - \text{악화예상 응답기업수}) / \text{응답기업수} \times 100 + 100$$
- 응답기업 : 인천지역 소재 소매유통업체 65개사
- 응답기업 분포
 - 업태별 <대형마트 (9개), 편의점(25개), 슈퍼마켓(12개), 무점포소매 (19개)>

1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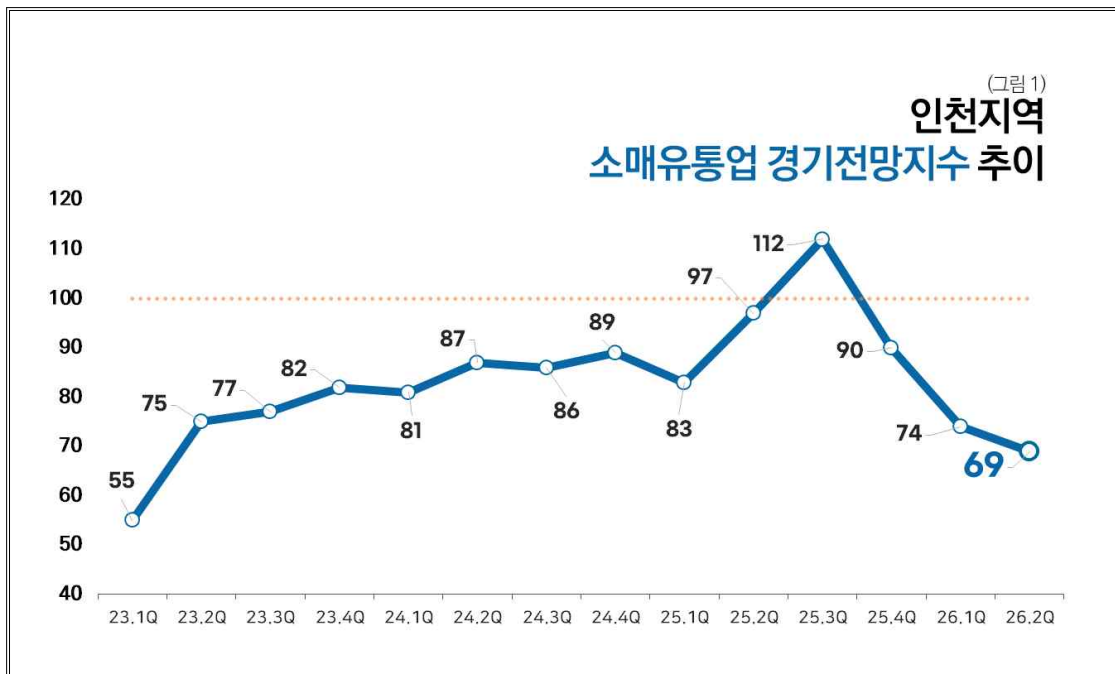
① 종합 경기 전망

- 인천지역 소재 소매유통업체(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6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2/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조사 결과, 종합 경기전망지수는 69로 집계되어 기준치(100)를 크게 하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인천지역 소매유통업계가 2026년 2분기에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 RBSI(소매유통업경기전망지수)가 100 이상인 경우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 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인 경우 그 반대 현상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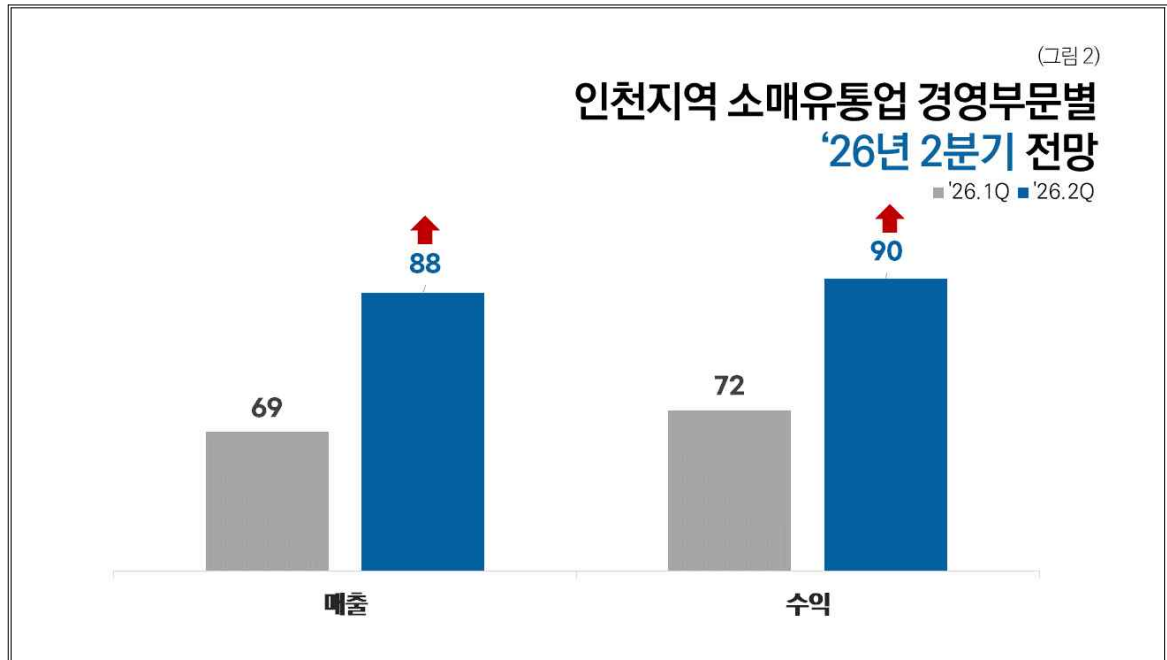
- 여름철 성수기 진입에 따른 매출 회복 기대감도 일부 있었으나,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인건비 및 원가 상승 등 비용 부담이 더해져 전반적인 경기 개선이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음
- 특히, 중동 사태(이란 전쟁) 등 대외 불안 요인에 따른 유가 및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인천지역 소매유통업계 전반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천지역 소비자심리지수[한국은행 인천본부] : 109.5[26.1] → 111.5[26.2] → 107.9[26.3]



② 부문별 경기 전망

- 2026년 2/4분기 매출전망지수는 88, 수익전망지수는 90으로 조사되었음. 여름철 성수기에 따른 매출 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및 원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구매력 약화로 지난 분기보다 다소 부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③ 업체별 경기 전망

- 대형마트의 경기전망지수는 89로 나타남. 일부 점포에서는 비용 절감과 수익성 중심 운영을 통한 경기 개선 기대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경쟁 심화와 소비 위축 등으로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함
- 편의점의 경기전망지수는 88로 조사됨. 여름철 성수기 진입에 따른 계절 상품 판매 증가와 유동객 증가에 대한 기대가 일부 나타남. 다만 소비심리 위축과 경기 둔화, 고물가 지속 등이 편의점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슈퍼마켓의 경기전망지수는 50으로 나타나 업체 중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보임. 지속된 경기 침체로 매출 하락과 비용 상승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응답함

- 전 업태에서 중동전쟁 등 대외 불안 요인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 물가 부담 확대 등이 공통적으로 언급됨. 이와 함께 원가 및 물류비 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도 나타남

인천지역 업태별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표 1)

업 태	'23년				'24년				'25년				'26년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총 합	55	75	77	82	81	87	86	89	83	97	112	90	74	69
대형마트	89	111	67	89	89	111	100	78	78	67	78	111	89	89
슈퍼마켓	50	50	58	58	83	75	83	100	92	117	125	83	72	88
편 의 점	88	72	116	108	68	84	76	76	72	92	124	80	67	50

※ 인천지역 백화점 업태의 경우, 표본조사의 특성상 조사대상 개수 미달로 지수에 반영하지 않음

2 소매유통업 경영 환경

① 2026년 2분기 경영 활동 현안 및 애로 사항

- 인천지역 소매유통업계의 2026년 2/4분기 경영 활동 시 예상되는 가장 큰 현안 및 애로 사항은 ‘소비심리 위축 및 내수부진’(58.5%)으로 나타남. 이어 ‘높은 물가’(43.1%), ‘비용 상승(인건비, 물류비 등)’(35.4%), ‘공급망 불안정 및 원가상승’(23.1%)도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함. 이외에도 ‘경쟁 심화(업체간 경쟁 및 동일업체 경쟁 심화)’(18.5%), ‘초저가 해외 플랫폼(알리, 테무 등)과의 가격 경쟁’(9.2%) 등도 애로 사항으로 조사됨

2026년 2분기 경영 활동 시 가장 큰 현안 및 애로 사항 (중복응답) (표 2)

조사항목	소비심리 위축 및 내수부진	높은 물가	비용 상승 (인건비, 물류비 등)	공급망 불안정 및 원가상승	경쟁 심화(업체간 경쟁 및 동일업체 경쟁 심화)	초저가 해외 플랫폼(알리, 테무 등)과의 가격 경쟁	금리 및 자금 조달 여건 악화	유통 규제 및 대응	기타
응답업체 (비중)	38개 (58.5%)	28개 (43.1%)	23개 (35.4%)	15개 (23.1%)	12개 (18.5%)	6개 (9.2%)	2개 (3.1%)	1개 (1.5%)	1개 (1.5%)

② 중동 사태가 인천지역 소매유통업계의 미치는 영향

- 중동 사태(이란 전쟁)으로 인한 매입가 및 물류 비용 상승이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업체는 78.5%(‘매우 부담됨(수익성에 심각한 타격 예상)’(15.4%), ‘다소 부담됨(비용상승으로 이익 감소 우려)’(63.1%))로 조사되었음. ‘보통(현 상태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도 16.9% 있었음

중동 사태(이란 전쟁)으로 인한 매입가 및 물류 비용 상승 부담 수준 (표 3)

조사항목	전혀 부담되지 않음 (영향 미비)	별로 부담되지 않음 (감당 가능한 수준)	보통 (현 상태 수준)	다소 부담됨 (비용상승으로 이익 감소 우려)	매우 부담됨 (수익성에 심각한 타격 예상)	해당 없음
응답업체 (비중)	0개 (0.0%)	0개 (0.0%)	11개 (16.9%)	41개 (63.1%)	10개 (15.4%)	3개 (4.6%)

- 중동 사태(이란 전쟁)으로 인한 매출 변화 전망에 대해 응답 업체의 84.6% ('매우 위축' 9.2%, '위축' 75.4%)가 매출 위축을 전망하였으며, '변화 없음' 및 '확대'는 각각 13.9%, 1.5%를 차지함

중동 사태(이란 전쟁)으로 인한 매출 변화 전망 (표 4)

조사항목	매우 확대	확대	변화 없음	위축	매우 위축 (지갑 닫기)
응답업체 (비중)	0개 (0.0%)	1개 (1.5%)	9개 (13.9%)	49개 (75.4%)	6개 (9.2%)